



# 봄꽃도...車 프로모션도 '활짝'

기아·현대차 등 완성차업체 다양한 혜택...36개월 무이자·100만원 할인·경품 제공 등

4월 봄 시즌을 맞아 자동차업체가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선 기아는 스포티지 50만원, 모닝 40만원, K5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HEV) 30만원, 니로 HEV 20만원, 봉고 LPI 20만원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할부를 이용할 경우 봉고 LPI를 제외한 해당 모델은 0% (24개월), 1% (36개월), 2% (48개월), 3%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K5 가솔린과 HEV 모델은 30만원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고, 스포티지도 2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소상공인 구매지원'을 통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레이 1.0 가솔린 밴과 봉고 디젤 및 LPI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0-6개월 0.0% (무납입), 7-36개월 할부 (4.0%) 혜택을 제공한다.

모닝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초기 12개월 할부금 무납입, 후기 36개월 3.5% 특별금리를 적용, 공통조건 20만원 할인 등을 제공, K3·K5·K7·K9 등 K시리즈는 3.5% 특별금리, 48개월 유예형 할부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유비 연간 최대 약 32만원 할인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 기아 전시장 방문자 중 이벤트 참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기아 계약금 지원쿠폰 10만원권

(3000명), 삼천리 팬택 전기전자(1명),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5명), 캠퍼필드 캠퍼데이블(50명), CU 설레이 교환권(100% 당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쏘나타의 경우 3% 할인 및 2.5%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쏘나타 HEV와 제네시스 G90에 대해서는 2.5% 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 스타렉스LPI 어린이 통학차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굿프렌드' 구축 후 1개월 이후 계약한 고객에게는 아반떼와 쏘나타, 그랜저, 코나, 베뉴, 투싼, 싼타페 등 주요 차종에 대해 10만원을 할인해준다.

수입차나 제네시스를 보유하거나 렌트 및 리스 고객 중 직구매나 현대캐피탈을 통해 렌트·리스로 구매할 경우 제네시스 G90을 100만원 할인한다.

한국지엠 역시 2020년형 트래버스를 36개월 전액 무이자나 2%대 저금리(최대 72개월)로 구매할 수 있고, 콤포 할부로 구매하면 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트레일블레이저와 말리부도 36개월 무이자 할부와 콤포 할부시 각각 80만원, 150만원 현금을 지원한다. 스파크는 콤포 할부시 현금 70만원 지원 또는 2.5% 저금리(최대 72개월) 장기 할부, 트랙스는 콤포 할부시 80만원 현금 지원 또는

2.9%(최대 72개월) 할부를 지원한다.

르노삼성엔 새출발에 나서는 고객이나 의료업계 종사자에게 SM6, QM6, 르노 캡처 30만원을 추가 할인과 지난해 8월 이전 생산차인 SM6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100만원 추가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할부 원금과 기간을 편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마이웨이'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최대 72개월)과 모든 차종에 대해 옵션, 용품, 보증연장 비용 50만원 등을 지원한다. 르노 마스터(MASTER)는 15인승 버스는 최대 185만원 상당의 특별 혜택도 마련했다.

쌍용차는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 올 뉴 렉스턴, 코란도 등을 구입시 최대 200만원 할인과 함께 무이자할부(60개월), 0.9% 할부프로그램(60개월), 재구매 고객 최대 50만원 추가 할인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 코란도 및 티볼리&에어는 0.9%, 올 뉴 렉스턴 1.9%, 렉스턴 스포츠&간 2.9% 등 저금리 할부(60개월)와 3.9% 72개월 할부시 코란도·티볼리&에어 100만원 할인 및 렉스턴 스포츠&간·올 뉴 렉스턴 50만원을 할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수입차 인기 식을 줄 모른다

3월 신규 등록 2만7297대...전년비 34.4% 증가

연초부터 시작된 수입차 인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3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한 2만7297대로 집계됐다.

전달보다는 22.5% 증가한 것으로, 1분기 누적으로는 7만1908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31.5% 증가했다.

3월의 경우 2월보다 영업일수가 증가하고 각 브랜드가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나서면서 신규 등록 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7597대로 2월에 이어 3월도 1위를 차지했

으며, 이어 BMW(6012대), 아우디(2737대), 폭스바겐(1628대), 지프(1557대), 볼보(1251대) 등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일본 모델이 지난해 동월 대비 23.5% 증가한 1737대가 판매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유럽 브랜드는 2만2240대로 38.2% 늘었고, 미국 브랜드도 3320대로 18.4% 증가했다.

3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1964대가 등록된 메르세데스-벤츠의 E 250이였으며, 아우디 A6 45 TFSI(573대)와 벤츠 E 350 4MATIC(564대), 렉서스 ES300h(559대)가 뒤를 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 60년 기술 집약 신제품 출시

사계절 컴포트 타이어 '솔루스 TA51'

금호타이어가 3년 만에 국내 신제품을 선보인다.

금호타이어는 5일 사계절용 컴포트 타이어, 마이 퍼스트 프리미엄(My First Premium) '솔루스(SOLUS) TA51'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급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른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만족도를 높인 제품이자, 금호타이어 60년 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60년을 여는 첫 신제품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사계절 전용 컴파운드를 적용하는 한편, 타이어 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딥플(dimple) 설계로 분산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패턴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했다.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 주행성능 및 마모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 트레드 강성 극대화로 상온·저온에서 제동력을 향상시켰으며, 눈길에서도 조정 안정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입체 아이론 설계로 트레드의 마모상태를 시각화할 수 있는 '마모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시켜 타이어 성능 저감 상황 및 교체시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타이어 옆면에는 금호타이어가 처음 선보이는 4분법 사이드월 디자인이 적용됐고, 한국전통 디자인에서 차용한 기와 형상과 전통 문양의 홀로



그램 넘링 기법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솔루스 TA51'은 16인치부터 19인치까지 총 34개 규격으로 대부분 주요 차종에 장착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갖췄다.

김상엽 금호타이어 영업마케팅본부 부사장은 "기술력가로 알려져 있는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최신 기술의 집약체이자 이번 '솔루스 TA51' 출시로 이어졌다"며 "국내 판매 1위 명성에 걸맞게 이번 제품이 국내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고객에게 배달의민족 쿠폰팩(4분 구매시 5만원, 2분 구매시 2만원 지급)을 증정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렉서스 "2025년까지 전 차종 전동화"

렉서스가 2025년까지 세계 각국에 10종 이상의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등의 전동화 모델을 포함한 20종의 신형-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인다.

5일 한국토요타자동차에 따르면 렉서스는 최근 브랜드 변혁을 위한 이같은 대응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모델의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인업 강화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모델과 과거에 없던 새로운 장르의 모델 등의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렉서스는 2025년에 전 차종에 전동화를 설정해 전동화 자동차의 판매 비율이 가솔린 엔진 자동차의 비율을 웃도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50년에는 전 모델 라인업의 재료, 부품, 차

량 제조에서부터 차량 물류, 최종 폐기 등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자동차 만들기 도전할 방침이다.

렉서스는 현재 전세계 90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9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누계 판매 대수는 193만대다.

사토 코지 렉서스 인터내셔널 사장은 "올해 출시되는 2종의 새로운 모델을 시작으로 다양화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체로움을 더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렉서스는 전기차 콘셉트카인 'LF-Z Electrified'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 단순하고 매끄러운 조형과 독자성 있는 디자인을 지향했으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4륜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4륜 구동력 제어 기술 'DIRECT4' 등을 탑재했다.

운전자의 취향과 행동 특성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음성 커뮤니케이션으로 운전 경로나 레스토랑의 예약 등을 제안한다.

/연합뉴스

##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2020년 신간!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제5쇄 판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최신간 양장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